

D 471 | 2018. 12. |

발 간 등 록 번 호

11-1390802-001346-01

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4차년도(2018)

사례마을 권역별 간담회 자료집

마상진 · 박대식 · 안 석 · 황정임 · 남기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발 간 등 록 번 호

11-1390802-001346-01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4차년도(2018)

사례마을 권역별 간담회 자료집

마상진 · 박대식 · 안 석 · 황정임 · 남기천

참여하신 분들

연천군 새동지마을	김탁순
연천군 구미리 노인회	김명수
연천군 구미리 귀농회	정영자
평창군 농업협회의소	김대현, 김기남
평창군 개수2리	오종근, 최학래, 황승주
단양군 귀농·귀촌팀	임행교
단양군 사지원2리	강용구, 송명석, 김기영, 최남선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	박종관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송진관
봉화군 풍호1리	송성일, 신기선
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	임준연
남해군 흥현1리	김옥진, 박종기, 박종영
남해어간장	이강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양동희
강진군귀농인협의회	박여래
강진군 현천마을	김세종, 임재필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송미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박대식, 안석, 남기천

D471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4차년도(2018)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8. 12.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ISBN | 978-89-480-5789-8 93520

- 본 보고서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과제명: 귀농·귀촌 유형별 정착실태 및 지역사회 역할 확대 방안연구, 과제번호:PJ00998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차 례

귀농·귀촌 사례마을 권역별 간담회 개요	1
귀농·귀촌 마을 사례조사 결과 (요약)	3
1차 간담회 종합토론	13
2차 간담회 종합토론	41

귀농·귀촌 사례마을 권역별 간담회 개요

□ 목적

-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의 1~3차년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사례 마을의 귀농·귀촌인, 마을 이장, 지자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귀농·귀촌 유입 요인과 현황, 귀농·귀촌으로 인한 변화, 마을 변화 단계 진단, 마을 갈등과 역 귀농·귀촌, 향후 귀농·귀촌 과제 등데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였음.

□ 주제 및 일정

회차	주제	발표자	일정	참석자	일시 및 장소
1	귀농·귀촌인 사례 마을 관계자 권역별 간담회	마상진	15:00~15:10 인사 및 소개	김탁순, 금명수, 정영자, 김대현, 김기남, 오종근, 최학래, 황승주, 임행교, 강용구, 송명석, 김기영, 최남선, 박종관, 송진관	8월 9일 15:00~18: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회의실
2			15:10~15:30 주제 발표		

<주제 발표>

귀농·귀촌 마을 사례조사 결과 (요약)

발표: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요약)

마상진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 자료

귀농·귀촌 사례마을
권역별 간담회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박대식, 안석, 남기천

조사 목적

- 귀농·귀촌자에 대한 설문 조사(1000명, 추적 조사)를 보완하여, 귀농·귀촌이 농촌 마을에 주는 의미, 귀농·귀촌으로 인한 농촌 마을의 변화 등을 질적으로 분석
 - 마을 특성 (위치, 주민구성, 경제활동, 공동체 활동)
 - 귀농·귀촌인 정착과정과 실태, 마을내 활동
 - 귀농·귀촌과 원주민 갈등과 역귀농·귀촌

조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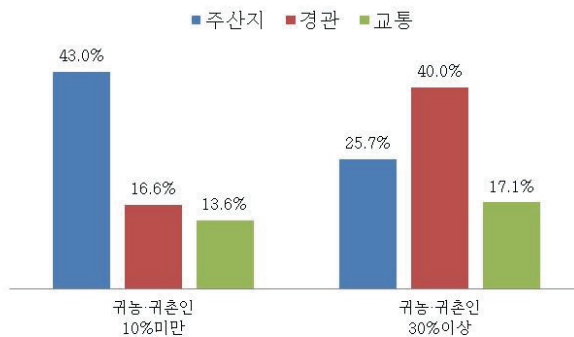
귀농·귀촌 마을 유형

- 교통이 편리한 곳, 경관이 좋은 곳, 품목 주산지 등으로 나뉨

마을	귀농귀촌 주요 지리적 유인 요인				귀농귀촌인 비율	농업인비율
	교통	주산지	경관	기타		
연천군 구미리	○				12/156(21.2%)	124/156(79.5%)
평창군 개수2리	○		○		112/135(83.0%)	27/135(20.0%)
단양군 사지원2리	○		○		24/52(46.2%)	28/52(53.8%)
서천군 등고리			○		81/145(55.9%)	64/145(44.1%)
봉화군 풍호1리			○		61/157(38.9%)	80/157(51.0%)
상주시 경양리		○			36/120(30.0%)	84/120(70.0%)
남해군 흥현1리			○		49/224(21.9%)	116/224(51.8%)
진안군 학선리			○		27/90(30.0%)	63/90(70.0%)
강진군 통백리		○			16/50(32.0%)	24/50(48.0%)
서귀포시 신례1리		○	○	교육	48/1,505(3.2%)	1,060/1,505(70.4%)

귀농·귀촌 마을 유형

- 귀농·귀촌인이 많아질수록 경관, 교통 요인 중요시



귀농·귀촌으로 인한 마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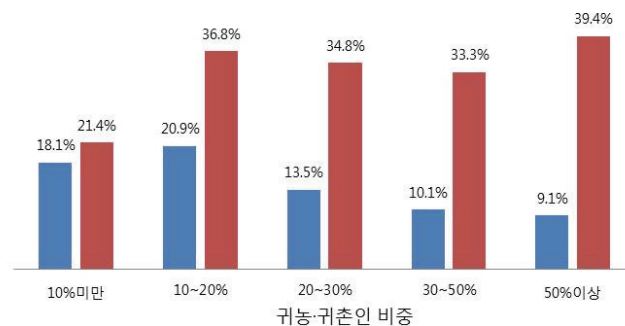
● 주민 구성, 갈등, 참여, 개방성 등의 변화

귀농·귀촌 마을 변화 단계	주요 특성			
	주민 구성	주민 갈등	귀농·귀촌인의 마을 참여	마을의 개방성
초기 단계	원주민 >> 귀농인	없음 (우호적)	초보적 참여	폐쇄적
갈등 단계	원주민 > 귀농인	많음	참여 활성화	폐쇄적
완숙 단계	원주민 = 귀농인	해결	간부로 활동	개방적

- 초기 단계: 단양, 강진, 제주?
- 갈등 단계: 연천, 남해, 봉화?
- 완숙 단계: 평창, 서천, 상주, 진안?

귀농·귀촌으로 인한 마을 변화

● 귀농·귀촌인이 늘수록 마을 주민의 부정적 인식은 줄고, 귀농·귀촌인의 적극적 참여는 확대



귀농 · 귀촌으로 인한 마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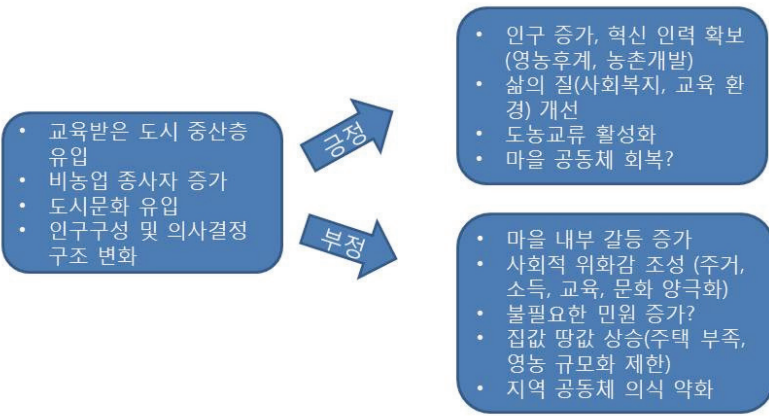
- 마을 인구의 20~30대 그리고 유아·청소년은 대부분 귀농·귀촌인

연령대	연천군 구미리		평창군 개수2리		단양군 사지원2리		서천군 등교리		봉화군 풍호1리	
	전체	귀농인	전체	귀농인	전체	귀농인	전체	귀농인	전체	귀농인
10대 이하	-	-	3	-	1	1	24	20	22	15
20~30대	1	-	13	9	-	-	15	15	18	2
40대	17	-	11	9	3	2	13	12	29	25
50대	22	7	37	32	14	13	21	19	24	9
60대	55	11	38	34	18	8	35	13	28	10
70대	42	13	25	23	11	-	25	2	20	-
80대 이상	19	2	8	5	5	-	12	-	16	-

연령대	상주시 경양리		남해군 흥천1리		진안군 학선리		강진군 현천리		사귀포시 신대1리	
	전체	귀농인	전체	귀농인	전체	귀농인	전체	귀농인	전체	귀농인
10대 이하	15	7	27	21	9	9	8	8	272	28
20~30대	11	8	35	5	3	3	1	1	352	4
40대	10	7	28	6	7	7	8	6	211	12
50대	18	7	44	8	16	6	2	2	273	1
60대	20	6	36	8	10	2	8	-	156	3
70대	38	1	29	1	41	-	18	-	180	-
80대 이상	8	-	25	-	4	-	5	-	81	-

귀농 · 귀촌으로 인한 마을 변화

- Rural Gentrification (Phillips 1993):
Greenification(Smith & Phillips 2001)



귀농 · 귀촌과 갈등

분류	갈등 요인
농촌 원주민 유발 갈등 요인	농촌 원주민의 뒷세
	귀농·귀촌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
	회의 방법을 무시하는 농촌 원주민
	귀농·귀촌인을 도시에서 실패하고 내려온 사람으로 인식하는 태도
	도시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농촌 원주민
	귀농·귀촌인의 도움을 기대하는 농촌 원주민의 태도
	귀농·귀촌인과 소통하기를 꺼려하는 농촌 원주민의 태도
	귀농·귀촌인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태도
	시간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태도
	귀농·귀촌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태도
귀농·귀촌인 유발 갈등 요인	자신의 땅에 대한 경계를 지으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태도
	농촌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귀농·귀촌인의 태도
	농촌 원주민과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많은 귀농·귀촌인의 태도
	농촌에 와서도 도시생활방식을 고집하는 태도
	마을의 관습이나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태도
	마을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
	농촌 원주민을 무시하는 태도
	귀농·귀촌인 주거단지 조성으로 농촌 원주민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생활 태도
	무분별한 개발로 마을의 분위기를 해치는 태도
	모든 일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마을의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태도	
농촌 원주민과 어울리지 않고 자신들끼리만 어울리는 태도	
영농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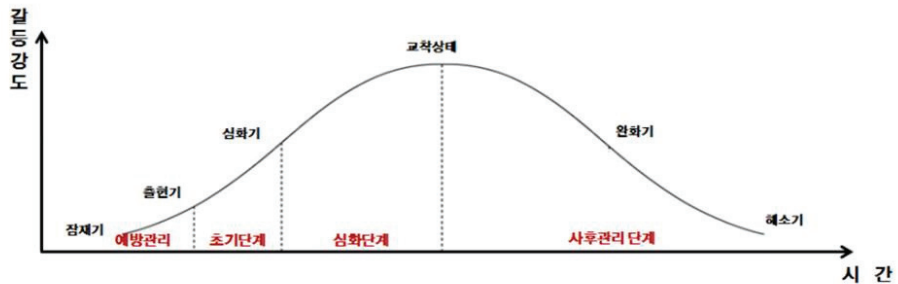


- 개별적 갈등 관리**
- 정기적인 친목모임 개최를 통한 상호간의 신뢰 구축
 - 귀농·귀촌자 교육 강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 형성
 - 농촌사회와 주민에 대한 사전이해와 교육 실시
 - 영농방식 공유 및 마을공동 소득화 프로그램 마련
- 구조적 갈등 관리**
- 갈등행위 예방을 위한 명확한 규정을 세움
 - 귀농·귀촌자의 마을조직 참여 및 의사결정권 보장
 - 마을 공동자원·자산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 공동체 수익 발생 시 개별 공헌도에 따른 수익 배분

자료: 유영민 등(2017)

자료: 이성일(2016)

귀농 · 귀촌과 갈등 그리고 그 이후 마을 변화



논의 사항

- 지역, 마을별 귀농·귀촌 유입 요인과 유입 현황
- 귀농·귀촌으로 인한 변화 (긍정·부정 효과)
- 마을 변화 단계 진단
- 마을 갈등과 역귀농, 그 원인과 해결 방안
- 향후 귀농·귀촌 과제

<1차 간담회 종합토론>

발표: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1차 간담회 종합토론

사회: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종합 토론자

- 김탁순(연천군 새둥지마을 대표)
- 금명수(연천군 구미리 노인회)
- 정영자(연천군 구미리 귀농회)
- 김대현(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 김기남(평창군 농어업회의소)
- 오종근(평창군 개수2리 전이장)
- 최학래(평창군 개수2리 귀농인)
- 황승주(평창군 개수2리 귀촌인)
- 임행교(단양군 귀농귀촌팀 팀장)
- 강용구(단양군 사지원2리 이장)
- 송명석(단양군 사지원2리 귀농인)
- 김기영(단양군 사지원2리 귀농인)
- 최남선(단양군 사지원2리 귀농인)
- 박종관(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 센터장)
- 송진관(서천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팀 팀장)
- 박대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종합 토론 내용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선 논의 내용은 주제 발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역·마을별 귀농·귀촌 유입 요인과 유입 현황, 귀농·귀촌으로 인한 마을의 변화, 마을 변화 단계 진단, 그리고 마을 갈등과 역귀농, 향후 귀농·귀촌 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발표순서는 우선 이장님들부터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귀농·귀촌인들, 이후 지자체 관계자들 순서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멀리서 오신 경북 상주시의 귀농귀촌정보센터의 센터장이시기도 한 박종관 이장님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종관(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 센터장):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온 상주 귀농귀촌정보센터의 센터장과 정향리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박종관 이라고 합니다. 저는 만 20년이 된 귀농자이고 마을 이장을 맡은 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귀농을 했을 때는 60~70대 어르신들이 70~80%를 차지하는 평범한 농촌이었습니다. 들어온 이후 저는 전국귀농운동본부 강사 일도 농사와 함께 하면서 예비 귀농인 들이 저희 마을로 실습을 오곤 했습니다. 실습을 했던 예비 귀농인들이 저를 통해 정착을 하기도 했고 다른 경로로도 계속 귀농인들이 유입되었습니다. 매년 30~40대 귀농자들이 한두 가정씩 꾸준히 들어오셔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인구 123명이었는데 현재 2018년 기준 15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사 하시는 분,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을 제외해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귀농에 순기능인 마을의 인구 증가 측면에서 마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매년 신생아가 일 년에 한 명은 태어났습니다.

저는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기존 주민들과 귀농자들과의 화합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경우 귀농 교육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된다는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몸으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개별적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갈등은 없습니다. 기존 주민 분들도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이 배타적인 것이 아닌 나한테도 마을한테도 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육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체감적으로도 조금씩 겪으면서 체득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오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을 안에서 동아리 활동, 풍물패라든지 소모임이 활성화 되었고 작년에 ‘전국행복마을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마을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그리고 소속감도 커지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 마을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현재 마을만들기사업도 진행 중이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현장 포럼을 통해 마을 자원이 무엇이 있고 등의 내용과 앞으로의 마을 방향성을 약 1년간 논의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앞으로 기존주민과 귀농인들이 같이 공존하는 구체적인 마을 형태를 고민하였을 때, 노인 복지를 첫 번째 목표로 해서 복지 마을을 꿈꾸었고 마을 어르신들 또한 이 목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분적인 컨셉(concept)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자립형 형태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기력이 없으신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형 노인 요양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젊은 층이 사회복지사, 간호사, 문화 복지사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노인층은 노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공익적인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고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이 농림부 사업 중 농어촌개발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첫째 5억 원 규모의 사업 후 10억짜리 사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려 땅 구입, 교육, 마을 자체 준비 과정을 지난 1년간 거치면서 준비했습니다. 간략히 마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특정한 곳으로 몰리는 이유입니다. 교통 문제, 경관문제, 그리고 주산지 문제 등 있지만 그 기저에 무엇이 깔려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상주지역 자체 내에서 포럼이나 워크숍을 통해

모의 해본 결과, 결국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목과 경관도 선택의 폭에 있지만, 그 속에 자기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주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맥을 보고 온 사유가 60%정도였습니다. 제가 귀농 교육을 하는 중 자기 성향과 맞는 이웃들이나 선배들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 또는 마을의 공동체 형태가 좋을 때 선택을 주저 없이 한 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마을은 젊은 층의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 문화나 복지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교육에 대한 욕구나 삶의 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 저희는 면 단위로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명칭 아래 지역 소통이나 거점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취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소그룹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 스스로가 강사가 되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경북도 자체사업으로 ‘행복씨앗마을사업’도 공모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도서관 옆에 공유부엌과 마을공방을 주제로 그런 공간 거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탁순(새동지마을 대표): 옆에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마을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마을가꾸기 사업 시작할 때인 초기 15년 전보다 외부에서 거의 40가구가 들어오고 인구도 50~60명이 증가 했습니다. 최근에는 마을 주민 모르게 들어왔다 나가는 분들도 계셔서 정확히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20년 전만해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사업하다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은 다 나가시고 현재는 마을에 살고 싶어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새로 집들도 지으시고, 커뮤니티도 형성되어 기존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보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노인 회장, 부녀회장님도 맡고 계세요. 바뀌어 나가는 단계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기존 주민들과 귀농자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농촌 기존

주민들은 어떻게 발전시킬까 또는 지속적으로 유지 시킬까가 먼저지만 도시에
서 오신 분들은 동네, 군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많이 바라는
거 같아요. 저희 마을에서 귀농인을 육성해오다 최근에 귀농인을 육성을 안 하
는 이유가 지나친 요구 때문입니다. 한 예로 연천군에서 교육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나를 교육장까지 태워다주라는 식으로 지자체에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지자체를 위해 무엇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함께 살까를 고민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농촌에 인구증가에 몫을
하니 나를 위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계세요. 더불어, 신규로 들어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마을 행사에 참여 하지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갈등이 생
기기도 해요.

저희의 고민은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존에 해왔던 틀을 깨고 새로 들어
온 귀농·귀촌인 들과 기존 주민들이 함께 마을에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부분은 상업적으로 들
어오는 분들로 농촌에서 축산 단지를 한다든지 양계장을 하시는 분들과 같은
지역에 환경적인 피해를 주면서 오시는 분들을 통제를 하고 싶지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안 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살려고 오셔서 같이 지역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도록 하는 방향성 제시를 해주시면 농촌이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
발전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천에 더 이상 귀농귀촌 사업을 하고 있지 않
는 건가요?

김탁순(새동지마을 대표): 하기는 하는데 주력사업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귀
농·귀촌 자금을 지원했는데 그것을 보고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농촌으로
이주함으로써 지자체에서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에 너무 치중되어 있었
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의 경우는 인구가 줄어들면 예산 편성이 적게 되
는 것에 너무 목을 매고 있어 기존의 가치가 훼손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금

이 없어도 농촌에 당연히 갈 수 있는 것이고 기존 주민들에게도 평등하게 자기가 노력하며 충분히 혜택도 받고 잘 살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귀농·귀촌을 했으니 난 받아야 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역으로 그런 게 없으면 안 갈 것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농촌에 사는 거 자체가 행복이고, 도시에서 갖지 못한 부분들을 통해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귀농 귀촌을 해서 특별히 지원금을 주는 것은 옳바르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주민들은 귀촌인들에게 개인적 혜택으로 가는 게 많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김탁순(새둥지마을 대표): 특별히 누구한테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공평한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살고 계신 분은 차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 공간을 위해 새둥지 마을을 만들었는데, 최근 마을 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제적인 틀, 유통이 계속 바뀌면서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해 왔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새둥지 마을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김탁순(새둥지마을 대표): 새둥지 마을은 마을 전체가 추진한 사업인데 본격적으로 사업체를 만들고 법인으로 진행하다 보면 법인에 속해있고 안 속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진행이 되면서 그에 따른 소득이 커졌고 여기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갈등 유발 요소가 됩니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새둥지 마을은 그대로 추진을 할 수 밖에 없고, 마을 전체의 입장에서 기존 주민과 귀농인들 모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리조트 등이 들어올 계획이고 앞으로 교통량의 유입이 증가할 것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에 골프장이나 관광지가 새로 건설되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바뀌는 환경에서 상업적인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마을 주민들의 자체적 노력도 필요하고 저희는 사업 계획서 작성 등을 돕는 등 마을 전체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자(연천군 구미리 귀농회): 구미리에 말씀을 하신 김에 제가 바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귀농인들은 혜택을 받으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구미리에 땅을 20년 전에 샀고 마을에 들어 온지는 8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천군 귀농회가 아닌 구미리 귀농회의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저희는 혜택 같은 것은 생각도 안했고 들어온 사람들도 상술적인 목적으로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장님께 도움을 받아 잘 정착해 감사하지만 연천군 귀농회가 아닌 구미리 귀농회 라고 혜택을 받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는 동네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고 몸으로 도와드리고 기존주민과 어울려 살고 싶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년 전에 땅을 구입해서 그 주변 이웃 분들을 많이 아는데 귀농회를 하면서 저에게 자꾸 들려오는 말은 마을 회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둥지 마을 체험관에 구미리 마을회관이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여건으로 불만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농번기 때 노인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이 있어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차 한 잔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노인회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노인정으로 오시라고 하고 매일 식사 준비를 해서 대접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둥지 마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소득에 1/10을 마을에 환원한다고 했는데 안 지켜 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말씀하시지만 앞에서는 침묵 하십니다. 노인회 또한 저희가 맡기 전에는 노인정 문을 열지 않았습니. 귀농 하신 분들 역시, 이런 소득 부분에서 갈등의 요소가 시작됩니다. 저 또한 작년에 갑자기 집에 불이 나서 노인정에서 임시 거처로

오래 거주하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이 불이 나 집을 고치는 데에 시간이 길어지면서 너무 오랫동안 거주하게 되었고 오랜 거주로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면서부터 동네에서 찬반 투표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집을 고치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랬습니다.

끝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마을 사업에 관련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네에서 이런 마을 자체적으로 상업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귀농인들을 위해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부녀회와 노인회 등의 임원들이 바뀌면서 전보다 참석률이 증가하면서 갈등이 완화되는 중입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마을 운영, 의견에서 배제가 되면 소외된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계속 안아주는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김탁순(새동지마을 대표): 네, 그래서 저는 전체 마을 주민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보려고 있습니다. 기존 주민이든 새로 들어오신 주민이든 전체가 공통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바탕으로 바꾸려고 준비중입니다. 폐쇄적이 아닌 개방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새동지마을사업 초기부터 개방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법인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익 환원 부분은 10%가 아닌 수입의 3%를 내어 놓는다고 했는데 마을 수도세와 전기세나 이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회관 불만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새동지마을 체험관이 마을 회관 기능까지 하는 것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 같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네 지난 한 시간은 상주와 연천에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한신간은 평창, 단양, 서천 순서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평창에서 오신 이장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종근(평창군 개수2리 전이장): 안녕하세요? 저는 개수 2리 귀농 17년차 이고 전 이장을 했던 오종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귀농·귀촌 멘토도 하고 각 지역 기술 센터나 사회단체 강의도 나가고 합니다. 이런 경험으로 박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과 귀촌, 어촌을 구분해달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각 부처에서 귀농과 귀촌을 묶어서 말하는데 귀농, 귀촌, 그리고 어촌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도시민들을 면담해보면 귀농과 귀촌을 구분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원 기관별 혜택들이 많이 다른데 지금 중앙 마스크이나 TV에서는 귀농, 귀촌, 어촌을 묶어서 말씀하십니다. 각 지자체마다 활동을 하다보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예들 들어 어느 지역은 귀촌자한테도 집수리의 정도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 조건에 맞춰 예산 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인들은 그러한 부분을 잘 모르고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주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파손, 수리를 해야 되나, 지붕, 내부를 해야 되나 등 분야에 따라 달라지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아쉽습니다. 박사님들 연구하시면서 중앙에 이런 건의를 올려서 귀농과 귀촌의 차이를 분명히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귀촌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많이 오셔서 저희 평창군은 귀농자보다 귀촌자가 많습니다. 평창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만하고 공기가 좋아 땅값이 비싼데 농사는 부가가치가 나오지 않아 어렵습니다. 귀촌자들은 300~500평 정도 마을에 땅을 구입해서 들어오는데, 이런 분들이 왜 나는 안 해주냐 하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 탓으로 보여 집니다.

또 다른 갈등은 도시민들이 귀촌해서 생활에 입·퇴거의 개입을 받을 때입니다. 자기 돈 내고 왔는데 무슨 상관이나 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시에서는 정부에서 각자 토지 매입 후에 개입 정리를 해 도로와 주택이 분리가 되는데 농촌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의 길은 원주민들 땅을 내놓아서 생긴 길인데 도시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이곳은 내 땅이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귀농·귀촌자들한테 홍보해서 기존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없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울타리를 칩니다. 시골 원주민들은 안치는데 외부에서 오

신 분들이 비싼 돈을 들여 울타리와 담을 치고 CCTV를 달아놔서 갈등의 소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배재하는 사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수2리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례들에 대해 대응을 하나요?

오종근(평창군 개수2리 전이장): 저희 마을은 행정기관, 면사무소에 등록된 가구가 82가구인데 실제 농사를 짓는 분은 7가구입니다. 평균 90%의 귀농자들 중에서 정말 농사를 지으시는 귀농자들은 7~8%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행정 정책이 아쉬운 게 약 300평 농지연보를 가지고 있으면 귀농자로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유 있는 분들은 500평을 가지고 200평 주택을 하고 400평 농지연보를 만들어서 경영등록을 해서 무언가를 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짓지 않고 누군가에게 지으라고 줘버립니다. 평창군은 저온저장고를 50% 지원해 주는데 진짜 농사를 짓는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 그런 분들이 신청해서 김치 등을 저장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농업용 전기 또한 농업인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고 귀촌인은 못 받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조금 더 구입해 최소 요건만 갖춰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민들이 도로, 전기, 그리고 상수를 이미 개설해 놓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혜택을 봅니다. 수도, 전기, 도로, 모두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 없이 들어온 사람들은 다 공짜로 얻는 것 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2002년 마을에 들어와 5년도 반장 보고 2007년 마을 간이 상수도 담당 관리를 3년 동안 하다 보니 이장을 맡게 되었고 2009년부터 2011년도 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업 많이 했습니다. ‘새농촌건설’, ‘정보화마을’, ‘마을가꾸기사업’ 등 많이 하다보니깐 이런 것들이 갈등 소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살고 있는데 자꾸 불려서 부역을 시키니 사람들이 왜 자꾸 일을 만드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상수도 정관, 노인

회 정관, 그리고 부녀회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도시생활, 조직 생활할 때 단체생활을 할 때는 정관이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우리 마을에 영농 조합 법인의 정관도 만들었습니다. 마을 절임 배추 영리 사업을 하면서 정관의 몇 %는 마을 기금으로 내게 만들었고 총 관리는 이장이 하고 담당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절임배추, 중탕기 등 거기에 나오는 소득은 조건 없이 마을 총회 때 오픈을 합니다. 부녀회 기금도 만들어 줍니다. 펜션에서 나오는 소주병을 마을로 다 모아서 부녀회 기금으로 쓰고 폐비닐 또한 부녀회기금으로 쓰입니다. 정관을 만들어 노인회 부녀회 또한 마을 기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또한 마을의 영농조합 법인과 별도로 영농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불금은 마을 영농회로 들어갑니다. 체험에서 들어오는 돈은 영농적 법인으로 들어가고 직불금, 임대소득차 등은 영농회로 들어갑니다. 분리를 마을, 영농조합법인,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로 해서 연말에 감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회, 부녀회는 감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마을 행사할 때 부녀회 없이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부녀회에 기금을 주고 어버이날 행사 찬조금과 체육대회 행사금도 부녀회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부녀회 기금이 우리 마을에서 현재 2,000만 원 정도 되고 영농회 4~5,000만 원, 수도자금은 군 상수 사업소에서 군에서 지원해주는데 가정에 들어가는 것들은 가정에서 냅니다.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은 마을발전기금으로 30만원에서 많이 내는 분들은 200만 원 정도 내십니다. 거기에다가 상수도 연결을 위해서 상수도 발전기금 300만 원을 또 냅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는 도시에서 오는 분들이 관정을 뚫으면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1,000만 원이 들어가고 모터를 돌려 일반 전기를 써야 됩니다. 상수도 요금이 보통 가정에서 1년에 2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간이 상수도는 1년에 물을 300톤 주는데 약 세가정이 쓰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너무 많이 주면 텃밭에 물을 주게 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산악지역이다 보니 물이 모자라게 되면 지대가 높은 사람들은 물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톤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추가 상수도 요금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내용 까지 마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강한데 3개월 동안 수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 수도를 끊어버립니다. 다시 물을 쓰

려면 처음부터 다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정관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계량기 등 제외한 문제는 발전기금 300만원 낸 것으로 모두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편합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을 경영을 하시네요?

오종근(평창군 개수2리 전이장): 마을 운영을 하다 보니 마을에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민원이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죠. 20년 전부터 반상회를 매월 10일에 합니다. 10일을 잡은 이유는 대화면 이장님들 월례 회의가 매월 4일 또는 9일이기 때문입니다. 반상회를 하면서 식사대접을 합니다. 이장님, 지도자님, 반장님, 부녀회장님들 외 60명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한번에 50~100만원씩 듭니다. 식사비용이 많이 나와 요새는 반별로 돌아가 비용을 댁니다. 귀촌자, 귀농자들이 신고식 할 때 체험관에 모여서 식사대접을 하고 세미나 실, 체험관, 노인 회관과 폐교에서 부녀회와 상의를 하여 식사 대접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장님이 현안을 토의하고 막판에 건의사항 등을 받습니다. 그 이후 이장님, 지도자님, 반장님, 부녀회장 등 총 13명과 함께 어떤 사안이 우선순위인지 파악해서 해결 순서, 장소 결정을 합니다. 결과는 다음 반상회 때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촌하신 분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사시던 분들한테 이의를 달지 말아야 한다. 죄송스럽지만 그 분들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도시 문화와는 동떨어진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과거에는 냄새가 난다고 건의사항이 없었는데 요새는 농약이나 거름을 뿌리는 것에 대해 냄새가 난다, 사람 먹는 음식에 저런 걸 뿌리면 되냐 등의 항의를 하는데 농민들이 들으면 골 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친환경 먹거리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로 봤을 때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50%입니다. 수입해서 들어오는 재료들에 방부제 처리가 안 돼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친환경이라고 여겨지는데 친환경은 한국에서 기르기 불가능합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평창의 경우는 마을의 영농조합 법인이 가장 큰 구심점으로 보여집니다.

오종근(평창군 개수2리 전이장):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마을에 조금 아쉬운 것이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가구가 3~4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로 그런 분들은 민원도 안 넣습니다.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찾아가셔서 자주 만나서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 귀농과 귀촌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중앙정부에서 귀농인과 귀촌인을 분리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시골 생활 문화에 대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 특색이나 문화를 이해시키고 더 쉽게 다가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화합의 길이 아니지 않나 생각 합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수2리는 다양한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운영 되는데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오종근(평창군 개수2리 전이장): 저희 개수 2리는 다양한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있는데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장을 맡기 전에 마을 회칙이 있었습니다. 마을 회칙 중에 상수도 같은 부분은 1년에 2만 원 정도 냈는데 외부인 유입으로 인해 겨울철에 물이 부족 하게 되면서 제가 상수도 규약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상수도 계량기를 자부담으로 달았습니다. 그 후 주민들에게 초기에는 5만 원씩을 더 받았는데 두 배가 이상 오른 가격이라고 민원도 많이 받았지만 6개월 간 설득을 시켜 서명을 전체 주민의 80%를 받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마을을 좋게 만들려는 저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원주민들도 돈을 더 낼지라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영농 조합 법인을 만들고 절임 배추사업을 시작하면서 배추 값으로 소득활동을 합니다.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주면서 정관화 시켰습니다. 원주민들은 점점 마을이 발전 하고 체험관들도 커지고 하면서 마을이 깨

끗해지고 발전해 가는 것을 보고 이제는 호응을 더 잘해드립니다.

최학래(평창군 개수2리 귀농인): 저는 개수 2리에 귀농한 최학래 라고 합니다. 전 이장님은 저희 마을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저는 개수리에 들어온 지 3년 차입니다. 이장님이 땅을 소개시켜주셔서 사과나무를 심은 지 3년이 되어가고 현재 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 가뭄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릴었는데 저희는 경사가 급해 모노레일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정산과 홍천에서 모노레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도 이러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저희 과수원에는 경사가 있어 트럭이 사과를 싣고 안전하게 내려가는 것에 한계가 있어 사과에 상처가 나고 보존성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귀농·귀촌 갈등 문제는 있으신가요?

황승주(평창군 개수2리 귀촌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강진이고 저는 이번에 우연히 개수 2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들어온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들어와서 처음 반상회를 나갔을 때 70명 정도 마을 분들이 나오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때 전 이장님께서 별도로 원주민들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외부인이 일에 개입하면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가장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 후 마을 청소로 하러 나갔다가 연세 드신 분이 앞장서서 70명가량이 청소를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무조건 노인들 일을 일주일에 세 시간 동안 도와주자 이었습니다. 저희 부락 사람들이 지금은 저에게 10년은 된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내 자신만 비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락에 이사를 왔으면 이 부락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제 일 년 사이에 농사일도 많이 배워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좋고 이웃 동생이 농사를 지으면 같이 따서 농민들 몇 포기를 나눠주고, 인심이 좋고 원주민이 좋으셔서 저희는 행복합니다. 그분들이 착해서 저희를 받아주셨습니다. 발표에서 말씀 하셨던 저희 마을의 갈등 관계는 초 완속

단계입니다.

오종근(평창군 개수2리 전이장): 다른 마을들이 행사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 때 술을 마시고 막판에 주먹다짐을 하거나 싸웁니다. 저희 마을은 17년 차인데 아직 그런 모습 하나 없습니다.

최학래(평창군 개수2리 귀농인): 저는 3년차 귀농인 인데 혜택이 미비한 게 있어서 귀농인 들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귀촌인 보다는 귀농인 들이 돈이 없어서 사과 과원 조성에 밑천이 많이 딸리는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동네 주민 분들이 하시는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대화도 하다 보니 이제는 직접 찾아오셔서 약도 쳐주시고 개별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마을 지도자로서 사람들이 밀어주시지만 3년이 넘어가면서 지금은 잘 정착한 것 같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대현 선생님 평창은 사과 관련 지원 계획은 없나요?

김대현(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저도 말씀하셔가지고 군의 사과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과원 조성 예산도 부족해서 모노레일 사업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종근(평창군 개수2리 전이장): 이래서 귀농과 귀촌은 분별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면 당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지원금은 귀농과 귀촌의 구분이 없습니다. 귀촌자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니 혜택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들어오는 연령대가 정년퇴직하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 살만큼 연금이나 퇴직금 등이 나오고, 귀농자 들에게 절실한 혜택을 교묘하게 받아갑니다. 젊은 귀농인 들한테는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고 귀촌자 들에게는 소소한 기부만 해주는 것이 귀촌인 들과 귀농

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합니다.

박대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귀촌자 들도 유형이 많습니다. 귀촌도 2~3년 후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촌도 유형화해서 정책이 들어가야 합니다.

최남선(단양군 사지원2리 귀농인): 혹시 내려가시기 전에 사과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최학래(평창군 개수2리 귀농인): 경상남도 함양의 사과 과수원 7,000평에 관리사로 있었습니다. 기사를 모집한다고 해서 봉급을 받고 기사로 일하다가 과원 관리를 추천받아서 어떤 사람을 통해 과원 관리사를 또 맡게 되었습니다. 이 후로 사과를 계속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기후가 변화해 강원도 쪽 땅을 매입하려고 다니다가 오종근 전 이장님을 만나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제 단양 쪽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남선(단양군 사지원2리 귀농인): 저는 교직에 근무하다가 은퇴하고, 현재만 4년 된 귀농인이며 농지가 300평이 넘어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느낀 바로는 농사지어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직해서 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멍하니 놓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 괴산에 유기농 교육을 2년 째 다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기농이 좋은 것은 아는데 소득으로 잘 이어지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진다고들 합니다. 어떤 분은 농약을 치다가 자기 몸에 이상이 와 유기농으로 바꾸었는데 수입이 연 1억에서 300만 원으로 바뀌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농사 교육을 받고 오지 않은 상태로 귀농·귀촌 교육 400시간을 받기 까지 했지만 경험이 하나도 없어 아까 여쭙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경험을 통해 사과를 선택하신건지 궁금했습니다. 유기농이라고 해서 배우러 다니긴 하지만 제가 가

지고 있는 토지 습성에 맞는 작물을 테스트(testing) 해야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 힘들더라고요.

강용구(단양군 사지원2리 이장):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양군 사지원 2리 이장 강용구라고 합니다. 저희 마을은 단양에서도 최북단 영월의 경계에 있는데 저희 부락은 작은 마을이고 현재 35가구, 약 50여명이 정도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락은 제가 귀농 온지 7년차이고 그동안 마을 부락 현황과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원주민들 단합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귀농을 온지 4년 만에 이장을 맡아 책임감을 갖고 뛰어다니면서 마을에 숙원 사업을 진행을 시켰고 단양군에서 귀농하기 좋은 마을에 선정되어 입간판도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귀농인들이 오시게 된 동기도 그런 일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입간판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저희 부락은 귀농인이 현재 인구의 반을 넘었습니다. 저는 귀농인들과 기존 주민들의 소통과 단결 그리고 화합을 첫 번째 목표를 두고 꾸려 나갔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23년 동안 관광버스가 출발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지 견학 명목의 마을 단체 여행을 가는 것을 성사시켰습니다. 부락민 전체가 올해 3년째 여행을 갔다 오니 너무 좋아들 하십니다. 군지원이 아닌 저희 마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광도 하면서 귀농인들이 협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한번 갈 때마다 모이는 돈이 약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녀회에서 협찬을 해줘서 경로잔치를 3년 째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저희 부락을 많이 사랑해주십니다. 1년에 3번씩 군수님을 초청해서 모두 같이 식사를 하며 주민들과 마을 사업을 논의합니다. 부락민들과 약간의 갈등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갈등이 없고 우리 부락민들 전체가 한 식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갈등이라면 어떤 갈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용구(단양군 사지원2리 이장): 저희 마을에는 마을 회관이 별도로 없고 경로당이 마을회관으로 같이 쓰이는데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갑자기 젊은 사람들

이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이용을 해서 화가 나셨던 적이 있습니다. 조용하던 동네를 시끄럽게 하니 할머니들이 젊은이들의 경로당 출입을 금하셔서 개발위원들과 상의 후에 할머니들을 설득을 시켜 지금은 유용하게 경로당을 잘 쓰고 있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앞서 말씀하신 정관 등은 잘 되어 있나요?

강용구(단양군 사지원2리 이장): 저희 부락은 정관은 없습니다. 저희 부락은 크게 4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넷입니다. 저희 군에는 해발 고지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군수님들을 초청했을 때 그 분들을 위해 유선 방송 설치를 요청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락은 귀농인들이 마을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처음 오면 부락 재정 통계를 바탕으로 마을 발전 기금을 50만원씩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들이를 경로당에서 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현재 그 누구와도 거리낌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귀농하신 분이 이장으로 된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강용구(단양군 사지원2리 이장): 제가 이장일 때 귀농인들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부락민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일을 많이 도와드리고, 노인 분들 경운기 시동도 걸어드리고 고추도 같이 심어주었더니 이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저희 마을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귀농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300평 미만으로 귀촌인이지만 농지연보만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금년에도 귀농하기 좋은 마을이라고 소문이 나서 취재를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송명석(단양군 사지원2리 귀농인): 저는 서울에서만 자라서 시골은 잘 모릅니다. 단양은 일면식도 없고 우연히 이장님 댁에 가서 잘 대접을 받고, 일 도와드리고 온 후로 ‘단양 느껴보기 체험’ 행사에 지원했습니다. 또 우연치 않게 이

장님 댁에 배정이 되어서 2박3일 정도 일하다 보니 사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살기가 좋은 곳이다 생각이 들어서 3개월 만에 집을 매입하고 단양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 가서 살든지 간에 정부 지원은 둘째 치고 사람 좋은 동네에 가서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자(연천군 구미리 귀농회): 말씀을 다 들어보니깐 저희 연천 마을이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저희 마을은 서울이랑 가까워 많은 분들이 마을 집을 별장으로만 이용하세요. 그래서 현재 사시는 분들이랑 접촉할 기회가 많이 없고 맨날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셔서 귀농하시는 분들과 기존 주민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 하고 서먹한 분들이 많습니다. 60 가구 중 반 정도는 주말만 이용합니다. 서울이나 일산에서 많이 오셔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오종근(평창군 개수2리 전이장): 우리 마을 90%가 호텔이고 저희 평창도 도시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82가구 중 48가구만 실 거주 가구입니다. 저희도 주말만 이용하는 가구가 많지만 마을 정관에 20평 이상 주택을 짓고 토지를 소유한다면 마을 주민으로 본다. 즉 마을 회비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이장 모금이 있는데 저희 마을은 가구당 20만원입니다. 비싸게 책점을 했는데 가구당 이장님 4만원, 지도자 2만원, 부녀자회장님 4만원, 반장님 4만원, 그리고 기본 수도요금 8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이장부터 시작해 수도요금을 마지막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주말 주택하시는 분은 이장, 반장 등에게 혜택 본 게 없으니 수도요금 8만원 만 내면 수도요금을 안낸 것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면 수도를 끊습니다. 대동회 때 매년 1회 수도요금 검침을 하는데 전년도와 올해 쓴 것을 비교해서 300톤 이하로 쓰면 기본 8만원, 300톤 이상으로 쓰면 톤당 일정금액을 추가로 부과 합니다. 80%정도는 바로 내지만, 20%로 이월이 됩니다. 몇 달의 유예기간을 주고 안내를 해주고 그래도 안내면 수도를 끊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 잘 내게 됩니다. 거주를 하던지 안하던지 마을 회비를 다 받고, 마을 청소를 다 같이 할때도 마을의 65% 밖에 나오지 않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그것은 그냥 봐드립니다. 마을 주민은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등록해 마을의 애경사나 청소 등 마을 회의를 문자로 다 안내드립니다. 간혹 문자를 보지 못 하시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반장님이 체크해서 참여도를 높입니다.

또한 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시골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요일별로 각종 재활용 쓰레기, 소각용 등을 화물차가 수거해나갑니다. 면에서 수거해 가는데 마을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칸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이러한 회칙을 만들고 CCTV를 설치해 두어 위반자는 반상회 때 직접 이름을 호명하며 냉정하게 처리하고 감싸줄 때는 또 감싸줘야 질서가 잡힙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단양에도 50 가구 중 주말 이용자가 있습니까?

강용구(단양군 사지원2리 이장): 4가구 정도 주말만 이용합니다. 집만 지어 놓고 주말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끝으로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평창군 농어업회의소): 그 다음으로 제가 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평창 농어업회의소에서 민간인과 행정 사이에서 민간을 대변하고 행정에서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귀농·귀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할 얘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석하지 못한 귀농·귀촌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받은 결과, 현황을 말씀 드리면 평창군이 5만 명 정도 인구를 유지하다가 95년도에 5만 인구가 무너지고 2000년대에 들어서 47,000명에서 42,000명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00여명 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통계를 보니 전입전출이 4,000명씩 맞아졌는데 자연사 사망

인구가 급격히 늘고 출생인구가 급격히 줄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출생률을 보니 출생자수는 작년 2017년 186명 정도인데 사망자가 415명 정도여서 전입전출이 4,100명입니다. 2013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귀농은 341가구에 544명이고, 귀촌이 4,877가구에 6,100명으로 한 가구당 1.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창은 43,000명 정도이며 누적인구 5년간 6,600여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약 15%가 평창으로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창군은 귀촌 관련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평창에서 귀농·귀촌 관련 지원을 시작한건 2016년입니다. 2016년 이전에 귀농·귀촌 담당이 없었고, 농업기술센터 안에 계장님께서 귀농 상담을 하고 예산이 없어 작목이나 지역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셨고, 2016년 이후 인구 늘리기를 정책으로 귀농·귀촌 담당이 생겼습니다. 담당이 농업기술센터 안에 담당 계장 한분 계원, 주문관 각 한명씩 이렇게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예산이 8천만 원, 올해 기준으로 3억8천만 원이 귀농·귀촌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대부분 귀농관련예산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대부분이 귀촌 전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대놓고 여기 얼마나 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평창은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예산 편성에 상당부분 작용을 하는데 평창은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으로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리스트를 보니 국비, 도비, 자체사업까지 총 14개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민간 차원에서는 귀농 관련 지원 센터가 구비되어있지 않아 타 지자체에서 잘 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에 접목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민간 중심으로 중간지원 조직 설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농 관련 사업들은 행정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번년부터 사업 예산이 늘어서 300평을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면 합법적으로 농업관련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창군에 귀농으로 분리된 예산이 1년에 700억 원 정도 되고 농업기술센터 조직 예산이 5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 3~4억 원 정도 밖에 귀농·귀촌인에게 안 쓰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다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도 열려있고 귀농인만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 기존 주민들에게서 역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역차별은 300~500평 가지고 있는 법적인 농민들에게 동인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따릅니다. 원주민 4,000~5,000평 하는 농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주는 게 맞는 것인가에 이견이 따릅니다. 어쨌거나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귀농인들에게 지원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홍천처럼 100억대 사업이 아니라 민간과 협약해서 민간이 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도와주는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센터까지 염두하고 있고 권역별로 귀농인의 집과 같은 사업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업 리스트를 제가 뽑아 왔는데 사실상 별 다른 것이 없고 올해부터 귀농인들 기초영농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 귀농인들이 필요한 자재와 시설을 자유롭게 7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1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 돼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귀농 사업 계획서를 제출 했을 시 1,000만 원까지는 자부담 없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계속 추진 되고 있습니다.

박대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가 전북 고창이랑 경남 거창에서 귀농·귀촌 정책 현장 토론회를 주도했는데 거기서 한 얘기가 주로 귀농·귀촌인들과 원주민 사이 갈등입니다. 기존 주민들은 귀농·귀촌인들에게 들어가는 지원이 많다고 생각해서 갈등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지 않고 있고, 귀농인들이 들어와 세수 증가 등의 측면으로 지역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존 주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아서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대현(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인구 43,000명에서 26%가 농업인인데 약 10,000여명이 됩니다. 농업 기술센터 예산이 500억 원 정도 되니까 인구로 나누면 500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귀농 정책 교육을 할 때 그런 말씀을 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행교(단양군 귀농귀촌팀): 저희도 인구가 30,000명이 무너지지 않는데 그 일환으로 도시민 유치도 신경 쓰려고 농업 축산과 내에 도시민 유치팀이 생겼었고 올해 초 귀농·귀촌팀으로 팀명이 바뀌었습니다. 농업 축산과 내에 총 예산이 100억 원이 넘어가는데 귀농 팀에는 2억8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예산은 홍보, 귀농·귀촌 아카데미를 운영해 대기업 퇴직 예정자를 2박3일 동안 교육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정착을 돕기 위한 농기계 구입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약 4,000만 원 정도이고 추가로 귀농인의 집 운영 정도로 큰 비용이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운영비를 드리지는 못해서 그 분들에게 보조금 등을 주고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장님과 귀농·귀촌인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님과 함께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군에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서류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단양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와 교육이 필요한데 저희 팀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조직 진단 중에 있습니다.

박대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는 지역 원주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제대로 알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임행교(단양군 귀농귀촌팀): 저희도 인지하고 이장님들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모여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기존 원주민들이 귀농·귀촌 그 이름이 들어가면 지원이 많아진다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귀농인들 입장도 들어보면 인구 늘리기를 통해 세수 확보 등에 한 몫을 하는데 너무 홀대를 받고 있다는 억울한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그분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종근(평창군 개수2리 전이장): 기존 원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이장님이 한분도 없습니다. 제가 이장 불 때 군수님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한 가구가 군에 배정이 되면 교부금을 비롯해 거주해서 1년 동안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데 세금이 나오는 것이 평창은 인당 약 48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주민들은 저 귀농인이 와서 우리에게, 군에 이득 볼게 하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익이 많거든요. 지금 군이나 면에서 마을 단체장님들이 그런 교육을 주민들한테 할 의욕도 생각도 없습니다. 제 생각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이런 귀농·귀촌자들이 많은 지역은 이장님들이 기존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교육을 분기별로 시키는 지침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진관(서천군농업기술센터): 저는 IMF 이후, 1998~2003년까지 귀농업무를 5년 정도 맡았는데, 그 이후 귀농이 안정화 되면서 업무가 사라졌었습니다. 최근 귀농업무를 다시 맡았는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천의 경우 13개 읍면 중 1개 면에서 작년도 출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구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년 전 만해도 인구가 6만 정도였지만 현재는 5만 5천명 정도로 고령화율도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살펴보니 먼저 들어온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 들어온 경우가 35%, 귀농·귀촌 투어 등을 하고 좋아서 들어온 경우가 28%, 박람회에서 보고 온 경우가 약 22%정도 됩니다. 초기에는 귀농인을 토착민들이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 토착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도시적 사고를 가지고 들어와 극복이 어려웠습니다. 요새는 도시민이 들어오면 마을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성실하고 정착 의지가 강한 도시민은 마을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지만, 몇몇 물을 흐리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현재는 토착민과 귀농인이 잘 조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토착민들이 반기지를 않고 지역 정서가 회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또한 서천에 대해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박사님들께서 귀농인을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진솔한 얘기는 귀농인이 아닌 토착민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귀농인들이 마을에 들어와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적 시각이 서천에도 있나요?

송진관(서천군농업기술센터): 귀농인들은 5년간 귀농지원사업을 받고 있고 기존 농업인들은 소외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귀농인들은 별도의 귀농지원사업 외에도 기존 농업인의 지원 사업 또한 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존 농업인들의 불만도 존재합니다. 귀농인의 농산물 생산량과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판로 개척 등의 역할을 하는 귀농인들을 보면 분명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천의 귀농과 귀촌의 비율은 약 4:6 정도입니다. 대부분 80% 정도가 벼농사이고 기계화율은 99.9%입니다. 대신 밭은 20%정도이며 기계화율은 20% 미만입니다. 서천의 땅이 물 빠짐이 없는 땅이어서 하우스를 할 수 없습니다. 일부 2개 지역 정도만 하우스가 가능한데 약 210ha 정도입니다. 대게 보면 밭작물이 발달된 곳에 귀농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천은 벼가 주를 이루고 있고 기존 토착민은 벼를 주로 하고 귀농인들은 밭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상담을 오면 서천에서 돈을 벌수 있는 작목은 노지고추 정도 인데 귀농인들은 힘든 것을 싫어해 추천이 어렵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에게 추천, 즉 입소문을 듣고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유 있는 귀촌인입니다. 서천은 바다 가깝고 공장 없고 공기도 좋아 여유가 있으면 살기 참 좋은 곳입니다. 다만 의료 기관만 좀 부족한데 인근에 군산, 익산, 전주가 가까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너울 마을은 어떻습니까? 기존주민들과 왕래가 활발한가요?

송진관(서천군농업기술센터): 산너울 마을은 건설과 사업으로 자세한 현황은 잘 모르지만 당초 분양할 때 지역민 30%, 타지인 70%의 비율이 의무화 됐었습니다. 마을이 구성된 초창기에는 귀농·귀촌 지원이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2009년경에는 전국에서 벤치마킹 되던 사업으로 잘 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서천에는 귀농협의회와 귀농·귀촌 연구회가 있는데 협의회는 귀촌인들 위주의 모임이고 연구회는 귀농인들이 주를 이룹니다. 연구회의 회장인 노희식 씨의 주도로 공동실습포를 운영 중에 있는데 우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품목별 동아리 형태이며 주말 농장도 가능합니다. 교육, 실습, 유인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은 정보 부족으로 땅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실습포에서 품목별로 농사를 짓고 숙달시켜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긴 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못 다한 얘기는 식사 장소에서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간담회 종합토론>

발표: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차 간담회 종합토론

사회: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종합 토론자

- 송성일(봉화군 풍호1리 전이장)
- 신기선(봉화군 풍호1리 귀농인)
- 임준연(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
- 김옥진(남해군 흥현1리 전이장)
- 박종기(남해군 흥현1리 귀농인)
- 박종영(남해군 흥현1리 귀농인)
- 이강윤(남해어간장)
- 양동희(강진군농업기술센터)
- 박여래(강진군귀농인협의회)
- 김세종(강진군 현천마을 이장)
- 임재필(강진군 현천마을 귀농인)
- 송미경(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안 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종합 토론 내용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10개 마을의 개별 조사를 마무리 하는 차원입니다.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은 지역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을 이장님, 주민,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귀농·귀촌의 유인요인과 현재 상황, 그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영향, 현 우리 마을의 단계, 갈등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향후 귀농귀촌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신 얘기들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보고서로 남겨져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하신 얘기들이 바로 반영은 안 되어도 언젠가는 그 당시에 해주셨던 얘기들이 어떤 의미를 준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선 이장님들부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멀리서 오신 봉화군의 송성일 이장님부터 얘기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성일(봉화군 풍호1리 전이장): 반갑습니다. 경북 봉화 비나리 마을의 전 이장입니다. 저는 귀농 한지 21년 정도 되었고 귀농 정책과 관련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귀농 정책은 농업과 분리되어 있어,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 합니다. 농촌이 잘 먹고 잘 살면 귀농 정책이 필요 없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이런 상황을 타개해서 농촌 공동체를 존속하려하다 보니 귀농정책을 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농정책은 농업과 이어져서 펼쳐져야 하는데 잘 안 되서 성장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네요.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귀농자가 일정 비율 이하 일 때는 농업 중심이 많다가 넘어서면 경관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 마을을 보면 귀농자가 늘어나면서 알려지고 은퇴 귀농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농업보다 경관을 중시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관찰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주민과 귀농자 사이 초기 갈등 단계를 갈등, 완속, 그리고 초 완속 단계 이렇게 나누고 이러한 갈등들이 귀농자가 많아지면 갈등

이 해소된다는 뉘앙스의 발표를 마상진 박사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맞을 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마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20년 전 까지만 해도 마을이 마을다웠습니다. 고추를 심으면 윗동네부터 일손을 도왔는데 10년이 지나니 집안 나누기를 하게 되고 20년이 지나니 각 가구 단위로 고추를 심게 됩니다. 농촌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마을 정책을 만들 때 시골의 낭만적인 것을 전제로 두고 마을의 보전이나 구성을 생각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정책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마을이 아니고 변화된 시대의 새로운 마을의 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구성원들과 공동의 원리를 제시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귀농 정책이 농업 부분에 필요에 의한 것도 있고 도시민들의 은퇴 욕구 등도 있습니다. 농업의 순수 인력 정책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양면적인 측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변화 단계에서는 일부 마을의 사례만으론 판단이 어렵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한 갈등이라는 것이 과연 귀농인이 많아진다고 봉합이 되는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 하셨습니다. 진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임준연(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 저는 귀농귀촌협의회에 5년 동안 실무를 봤고, 계속 서울에 살다가 진안에 귀농 12년차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 내려왔는데, 개인적으로 밥벌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농촌에도 사회, 제조, 그리고 서비스업 쪽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기대로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그 중 하나가 협의회 일이었습니다. 진안에 들어오신 분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였고 각 마을에 계신 귀농인들, 초보자들을 연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계속 시간이 흘러도 잘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귀농인들이 많아지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의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진안군의 봉황리 같은 경우는 귀농인 일정 비율이 넘었고 지금도

수요는 있으나 땅과 집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완전한 공동체성을 갖고 마을 사업을 이끌어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체로 귀농인들이 좋아할만한 마을이라고 하면 진안의 경우 환경적이 우수한 지역을 좋아하고 이런 곳에 유입량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천면 무릉리도 그 중 하나입니다. 남쪽 사면에 위치한 강촌 마을은 이미 귀농·귀촌인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곳은 마을 내부의 갈등 상황이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갈등이 어떻게 봉합되고 치유 될지는 저도 한발 짝 떨어져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떠한 갈등이 있었나요?

임준연(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 이장 선거와 관련된 갈등이었는데 전 이장님께서 사고를 당하고 궐위(闕位) 되면서 다른 분을 마을에서 한쪽 주축이 된 분들이 추천해서 선임이 됐는데, 나머지 분들은 절차가 민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한차례 이장이 선거를 통해 다시 바뀌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이 마을 한 곳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진안의 전망을 본다고 하면 10년 전만해도 유입이 많이 되다가 지금은 구입할 땅도 별로 없고, 선불리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마을의 정서가 있습니다.

귀농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에 귀농, 귀촌 문구를 넣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정책, 농업 지원이나 보조 지원, 선발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도 이름 때문에 기존 주민 분들이 그들만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착각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귀농인들 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존 주민들은 오해가 많고 때론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건의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정책 중 진안군이 10년 전에 세웠던 오대원칙들이 최근에 와서 무시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는 마을 만들기 팀에 있던 인구 정책단을 따로 만들어 귀농귀촌 담당을 집어 넣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녹여 마을 안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닌 그저 인구를 늘리려는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촌 마을이 가장 갈등이 깊나요?

임준연(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 예,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다른 마을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요인을 나열한 부분에서도 들어온 사람이 마을에 이권이나 주도권을 가지려 하는 분석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주도권이 한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고 소수자가 되는 쪽에서는 발언권이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송미경(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저는 서귀포 귀농·귀촌 담당자입니다. 귀농귀촌 통계자료를 보면 제주시가 1위이고 2번째가 서귀포시 입니다. 아무래도 귀농·귀촌 유입이 많은 만큼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신분들이 많다 보니까 꼭 귀농귀촌인의 유입으로 생기는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집값, 교통, 그리고 쓰레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작년에 대중교통 개편안도 나오고 요일을 정해서 배출 날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는 관광객이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구수가 많아지면 더 큰 사업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더 좋은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18만 명 정도가 되는데 16만 명이 되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1년에 만 명씩 늘어나는 추세고 현재 인구가 18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갑자기 현재 1년에 만 명씩 늘어나는 추세 중 제일 큰 문제는 귀농인들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제주 골든벨’ 대회입니다. 마을 주민 한분과 귀농인 한분이 팀이 되어 대회를 여는 것인데 제주도의 풍습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서로 이해시키고, 주민 간 갈등 이라는 게 서로 교류가 없어 생기는 것을 인지하고 주민 간 교류를 높이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골든벨 행사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마을 별로 멘토링이나 음악회도 진행 중이지만 계속 문제는 남아있어서 다른 마을은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세종(강진군 현천마을 이장): 강진 현천 마을 이장 김세종입니다. 우리 마을은 고향으로 돌아온 가정이 2가정이고 무연고로 온 가정은 4가정, 인근에서 이사 온 가정이 1가정입니다. 저희는 귀농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 예비 귀농인들이 임시 거주를 하고 있고, 3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인근에 집을 구해 나가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엔 청주에서 어떤 분이 이사 집을 벌써 가지고 내려와 집을 찾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는 고향으로 귀촌 한지 7년째인데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마을 공동 작업인 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을은 새벽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하고 농번기 끝나고 합니다. 저는 마을은 울력을 중요시합니다. 작년의 경우 하우스를 하는 좀 떨어져 사는 귀농인에게 몇 번을 참석 하라고 말해주었는데 안 해서 마을에 1년에 몇 번씩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다른 젊은 친구들은 잘 도와줘서 마을 주민들이 귀농인 유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귀농인들이 조금 숙이면 잘 완화 됩니다. 귀농인들이 마을에 일이 필요할 때 도와드리면 그런 정으로 환영하는 것이고 간혹 가다 기존 주민들이 예비 귀농인을 정당한 대가 없이 노동을 사용하려 하는데 저는 그런 의식을 없애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라고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농어촌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 현지인들 중 전 이장님이 이장 직을 뺏겼다고 생각하셔서 두 분 정도가 참석을 안 하십니다. 저는 모임이 있으면 귀농인들은 항상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참석 안하는 두 분만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 전 이장님과의 불화만 빼면 화합도 잘 되고 좋은 귀농인들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이장님은 왜 그러시는 건가요?

김세중(강진군 현천마을 이장): 이장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현 이장과 전 이장 사이에는 트러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조를 잘 안하시고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어 갈등이 시작되는 거 같습니다. 사실 저는 고향으로 온 것이어서 현재는 논농사를 90 마지기 정도 시작하는데 귀농인들은 기반이 없으니 호미 하나부터 영농 시설을 구입해야하고 작은 토지에서 수확을 하고 먹고 살려면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귀농인들이 와서 자신들을 위한 보조금을 귀농인들이 다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인식들은 제가 이장으로서는 제지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귀농인들 끼리끼리만 친해서 동네 사람들과 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랫마을의 경우 동네 사람들보다는 다른 동네 귀농인들과 더 잘 어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네에 다 자녀 귀농인들이 들어와 마을이 많이 젊어 졌고, 연세가 있으신 원주민 분들도 새로 오는 사람들을 보듬어 줘야 한다고 늘 말씀하셔서 호의적인 마을입니다. 마을에 들어오려고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좀 있는데 마을에 빈집도 없고 해서 아직은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새로 집을 짓고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 않은가요?

김세중(강진군 현천마을 이장): 마을 사람들이 터를 잘 팔지 않습니다. 새로 집 지은 집이 두 집 지어서 왔고 다른 한 집은 땅만 사놓고 내년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을은 화합이 잘 됩니다.

임준연(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 마을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요?

김세중(강진군 현천마을 이장): 저희가 26가구에 인구가 52명입니다. 7가구가 귀농인과 근처에서 이주한 가구입니다. 이장의 중재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을에 두 가구가 떠났는데 한집은 개인적 사정이고 다른 한 집이 마을 주민과 불화가 있어 떠난 집이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살짝 기존 주민한테 속이

면 마을 사람이 보듬어 주려고 하는데 너무 특 튀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옥진(남해군 홍현1리 전이장): 남해군 홍현 1리 전 이장 김옥진 입니다. 현 이장님은 일이 바빠 제가 왔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귀향을 해서 이장 9년, 체험마을에서 사무장으로 2년 간 일했고 현재 11년간 마을 일을 했습니다. 마을 인구는 230명이며 귀촌한 분들은 40명으로 비율이 8:2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마을은 바다가 있고 농지는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 귀농자 보다 귀어자도 일부 있지만 팬션이나 개인사업 목적으로 대부분 귀촌을 합니다. 은퇴하신 배우부부터 퇴직하신 분들도 들어옵니다. 주로 팬션 사업자로 오시면서 갈등 요인은 동네 일에 참여를 안 하고 자기 수익이 우선이다 보니 갈등 요인을 안고 입습니다. 장점은 남해가 지자체 소멸 5순위 인데 귀농·귀촌인들이 많아지면 지자체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회복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주민총회를 해도 이분들은 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장할 때, 귀촌인들에게 경관 좋은 우리 마을에서 수익을 올리니까 주민 총회를 나오셔서 인사도 하고 식사비를 한번 내놓으라고 요구하는데 잘 참여는 않지만 식사비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경관 좋고 기존 주민의 주거지역과는 벗어난 독립된 공간을 원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유선 방송이 나오지 않아 스피커를 개인 구매를 하는 것으로 마을 법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스피커 비용이 5만원이 들어 아예 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으로서 전달 사항을 못 드립니다. 마을 이장의 전달 사항, 안전 대피 방송 등을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군에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시행이 안 되고 있기는 합니다.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면 무선 앰프 시설을 통해 그 분들의 참여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갈등으로는 어촌계 가입입니다. 기존 주민 분들의 동의로 현재까지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은 정관 상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주민을 설득 하는 중에 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한 10년만 우리 동네에 거주한 기

록이 있으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은 가입을 시키는 쪽으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과 갈등을 해소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지원 하자는 목표가 있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난 주 서울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마을이 움직이는 게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참여를 유발해야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면서 운영도 패쇄적으로 바뀌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경영의 투명화나 민주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의 향약 등을 새로운 도시민들에 맞게 바꾸는 작업을 하셨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확실히 이득을 보게끔 마을 규약 8개정도 만들어 경영을 하십니다. 참여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게 하니 참여가 원활하게 되더군요. 이번에는 멀리서 오신 신기선 선생님부터 귀농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기선(봉화군 풍호1리 귀농인): 저는 송성일 전 이장님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고 귀향을 했습니다. 저는 산업화가 막 시작 될 때, 60~70년대 농민들이 도시를 떠날 때쯤 도시로 떠났다가 다시 귀향을 했습니다. 60년대 때는 90가구가 사는 마을이었는데 얼마 전에 50가구 까지 줄었고 최근 귀농 바람을 타고 현재 70가구가 거주 중입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농촌의 높은 삶의 질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긴 하였지만 동네 주민 분들과 협조하고 서로 웃고 일 년에 몇 차례씩 놀고 하는 모습들이 좋아서 이제 은퇴하고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으니 그러한 모습에 일조하여 보탬이 되고자 귀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귀농인들과 토박이들의 문화 차이로 제가 기대했던 분위기는 형성되기 어려웠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현재 농촌에 있는 기존 주민들과 귀농인들의 지식 격차가 엄청 차이 납니다. 산업화 붐이 불면서 생각 있고 몸 관찮으신 분들은 도시로 떠났고 반대로 아닌 분들은 계속 농촌에 살면서 사고방식과 지적 수준이 점차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것을 좁혀주는 마을의 규약이 필요하고 특히 귀농·귀촌인들의 이해심이 결여되어 정이 없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다 나가 살고 홀로 외롭게 지내는 노인 분들을 관심을 가져주고 인정을 가지고 돌봐주면 좋은데 아무도 그렇지 않고 외지인들이 늘어난 탓에 두레 정신이, 상포계, 초롱계 등이 전부 와해되고 다 깨져서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 그러한 문화가 존속이 되어있으면 그나마 외부인들이 들어올 때 그 마을의 관습이나 유례에 적응해야 하는데 그것이 다 깨져서 나는 나대로 살면서 주민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것이 아닌 토착민이 밀려난다는 생각 밖에 안 들고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풍호리의 경우에는 마을 규약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송성일(봉화군 풍호1리 전이장): 전혀 없지는 않지만 마을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보완을 하려 노력했지만 실제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왜 농촌에 귀농자와 원주민의 갈등이 이슈화 될까 생각해보았을 때 저는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권력 관계 때문에 갈등 관계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들여다보이는 농촌이라는 특성 탓에 갈등구조가 과장되지 않았나 합니다. 어떤 관계에도 갈등이 있지만 귀농·귀촌 갈등들이 다른 갈등들에 비해 좀 과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데 외부인이 들어오면 당연히 경계를 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봉화에 20년 동안 살면서 지역의 민원이나 마찰의 대부분 원인은 귀농인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귀농인들이 일에 참견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기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역으로 생각하면 약삭빠르고 모질고 독한 사람은 다 나갔지만, 나는 농사밖에 할지 모르고 소박하고 착한 사람들이 남아 있는 곳이 농촌입니다. 왜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지 않고 농약을 치냐 등 이런 식의 말을 귀농인들이 하니 마찰이 일어나고 귀농인들의 마인드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찰이 있다고 생각합

니다. 내가 그 마을에 들어와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내가 마을에 무엇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지와 같은 자세로 귀농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선(봉화군 풍호1리 귀농인): 저희 이장님은 매사에 솔선수범하셔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장님을 맡으셨습니다. 저희 이장님은 같은 귀농인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귀농자들에게 고소도 당하시기도 하고 이장님 같은 마음을 지니면 마찰이 없는데 귀농인들은 어우러져 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농촌에서 조용히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왔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다시 도시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지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마을에 귀농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육 받고 오시는 분들은 잘 정착하시는데 교육을 안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육의 시스템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의 마을의 역사나 의식 등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끔, 의무는 아니지만 제안하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임준연 선생님 진안은 마을의 규약 등이 있나요?

임준연(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 제가 10년 넘게 살면서 느낀 것은 마을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장님께서 오셔서 마을 발전기금으로 50만원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저에게는 목돈이어서 분할해서 내겠다고 해서 몇 달에 걸쳐 다 내고 나니 총회에 초청받고 지금까지 총 4번 정도 참가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마을 결산 내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입 이장 후보가 있을 경우 선출하는데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이장 선출은 안하고 현재 24년째 연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건은 유명무실하게 된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매년 마을 사업이나 하부조직에 관해서 회계를 관장하고 이장이 가운데서 총 결산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약이라고 하면 상벌에 관한 것도 있는데 저는 들어와서 하시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을에 구성원들이 바뀌고 예전의 규칙들도 바뀌면서 새롭게 고쳐나가는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일부의 마을에서는 운영에 대해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임재필(강진군 현천마을 귀촌인): 저는 귀농한지는 4년이 되었고 아이들 세 명과 같이 왔습니다. 농사는 크게 안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와 닿지 않는 게 저희 마을은 귀농인들과 지역민들의 갈등이 크게 있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 간의 갈등이고 집단 간의 갈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건수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세종(강진군 현천마을 이장):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마을은 짐성촌인데 아버지, 어머니 땅 제가 받고 큰집 땅을 사들이고 하다 보니 기존 주민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조금씩 빼앗긴 후 보이지 않는 텃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보이지 않는 텃세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마을을 관리하고 땅을 관리하니 갈등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임재필 씨 같은 경우는 농사와 또 다른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땅 가지고 마찰을 일으킬 요지가 없었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천마을은 규약이 있나요?

김세종(강진군 현천마을 이장): 규약은 특별히 없고 마을 총회 하고 전부터 내려오던 백중, 유두, 칠석 등 다 같이 모여 식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칠순·팔순이 되면 돈을 냅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시민들은 마을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

는데 마을의 역사를 알려주면 정착이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교육 기회가 없다면 총회가 언제 있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경우 아파트 관리 규약 등이 있어서 쉽게 아는데 농촌에서는 일일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 소외를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임재필(강진군 현천마을 귀촌인): 저도 사실 집성촌에 들어갈 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생활하면서 불편한건 없습니다. 왕따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없었고 다만 처음에 식사 대접하라고 할 때 한번 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얻어먹기만 했습니다.

박여래(강진군귀농인협의회): 저는 신랑과 귀농한지 3년차입니다. 강진군이 시부모님 덕의 고향입니다. 내려와서 작물을 선택하고 내려온 것은 아니었고 강진에서 교육이란 교육을 다 들으면서 정한 것이 식용 곤충입니다. 창고에서 준비를 했지만 저희가 많이 키운다고 해서 판매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어서 소득 창출이 힘듭니다. 3년간 수입이 없어서 해서 올해부터 강진 귀농인 협의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 대부분 저희처럼 작물에 대한 결정 없이 내려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대부분 협의회에 문의를 안 하시고 알아서 잘 하십니다. 준비를 많이 못하고 내려오신 분들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식용곤충이라는 것을 선택했지만 소득창출이 어려워서 일을 하면서 어떤 작물을 추천해주기도 어려움이 있고, 협의회에서는 보통 농작물 관리 보다는 지역민들과 융화사업에서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이나 귀농인 선후배 관계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잘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창출이 귀농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제가 농업에 대해 소득 창출의 힘들 때문에 주변에 귀농하라고 권유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생활하는데 도시의 빠빠함은 없지만, 소득창출과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진은 곤충을 많이 키우십니까?

박여래(강진군 귀농인협의회 간사): 농가는 3농가 정도 되는데 곤충 쪽으로는 많이 수요가 없고 원가가 너무 낮게 측정되어 있어서 대기업에 납품할 수도 없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면 그만큼 물량생산이 힘들어 소득이 힘들고 또 크게 짓는다고 해서 공판장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소득 창출이 힘듭니다.

임재필(강진군 현천마을 귀촌인): 얘기를 듣다보니 생각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갈등 문제로 힘들어하는 귀농인들은 2차적이고 귀농인들이 소득창출이 안되고 생계유지가 힘들어서 역귀농이 일어납니다. 마을 갈등 때문에 역귀농은 부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매사에 짜증나고 힘들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안 되다 보니까 힘들어 보입니다.

양동희(강진군농업기술센터): 강진의 경우는 당장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김세종 이장님 댁에 일하시는 여자 분이 있는데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멘티 분에게 일 샀으로 80만원 이장님께 40만원을 드리고 있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진행 중입니다.

임재필(강진군 현천마을 귀촌인): 저는 연극을 하고 문화예술 교육과 마을에서 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진에서 학교 교육을 제외한 현재 진행하는 사업 4~5개를 합니다. 하면서 느낀 것은, 가슴 아프고 절실한 부분은 문화 예술 교육을 귀농인을 주 타겟으로 해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나거나, 자리를 옮기거나, 불안해하거나 등등 귀농인을 위한 수업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도를 해보았지만 잘 안 되고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자질의 문제도 지역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 안정적인 소득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강윤(남해어간장): 저는 남해군 흥현마을에서 왔습니다. 들어 온지는 6년 차가 되었고 처음엔 바다가 좋아 배도 사고 섬도 오가며 지내자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귀촌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내다보니 주변사람들이 땅도 어느 정도 사고 농지연보 등록도 하고 농사도 좀 짓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땅을 조금 사 농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강진군에서 말씀하신대로 농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려고 해도 만만치가 않고 기술센터에서 빌려준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트럭이 있나요 모가 있나요? 가지고 올 수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귀농인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땅값도 비싸고 그 비싼 땅에서 수익창출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귀농인들이 남들이 모르는 영농기술이나 막대한 자본이 있다면 성공이 가능하지만 돈이 없다면 텃밭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귀촌에서 귀농에서 귀어로 갔습니다. 저는 귀어 쪽에서 어간장을 생산합니다. 멸치나 메주를 생산하는데 지금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고 남해에서는 저희가 단가가 비싸다 보니 판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쪽으로 가서 역으로 팔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판로 개척 쪽에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하동군의 경우는 서초구에 매장을 만들어 특산물을 파는 시스템이 있는데 남해군에서는 도와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박여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생산하는 것도 좋고, 현재 최고의 제품도 만들어 냈지만 이후에 판매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 되어야 귀농귀촌을 자신 있게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박종영(남해군 흥현1리 귀농인): 저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준비 중인 단계이고 김옥진 전이장님 덕분에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갑니다. 저는 귀농을 했을 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살겠다는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어떻게 접촉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때 만나거나 마을 회관에서 식사를 같이 준비할 때 처음 농사 지러 온 사람들을 위해 집들이 선물로 호미나 이런 장비를 준비해서 마을에서 주는 것도 새로

오는 사람과 원주민 간에 좋지 않을 까 합니다. 제가 귀농·귀촌 교육받을 때는 이런 생각이 없는데 이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갑니다.

박종기(남해군 흥현1리 귀농인): 저는 김옥진 전 이장님 아내입니다. 시골 안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원주민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상태입니다. 귀농·귀촌이 아직 힘듭니다. 고추를 심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힘들어서 고생중입니다. 농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기존 주민들과 어울려 보려고 처음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울타리를 칩니다. 저를 완전 이방인 취급을 해서 이제는 저 스스로 즐거운 곳을 쫓아 다닙니다.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이 편하고 대화도 잘 통합니다. 남해 전체가 모이는 모임에서 바느질, 그림, 피아노 등 취미 생활 하는 그룹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귀농정책이 현재 대부분 남성 위주로 되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게 접근이 안 되고 부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큰 이슈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여래(강진군귀농인협의회): 강진도 여성 친화도시라고 해서 군에서 많은 여성 사업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마을 분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같이 어울릴 수 없었고, 군에서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공예 같은 수업을 받으면서 사람과 어울리고 귀농하신 여성분들도 같이 만나서 월에 한번 씩 열리는 친목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과 원주민들이 융합되어 있는 동아리라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신기선(봉화군 풍호1리 귀농인):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농촌 사람들은 수십 년간 동고동락하면서 한 덩어리가 되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파고들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거리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술선수범하면서 어우러져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기(남해군 홍현1리 귀농인):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회의한다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면 억압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이상한 느낌이 몇 년간 있었습니다.

송성일(봉화군 풍호1리 전이장): 저희 와이프는 1년 후에 마을에 들어왔는데,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못 어울리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화가여서 밤새 그림을 그리지만 마을의 모임은 새벽부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임에 잘 참여하지도 못하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자기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삶을 정착했습니다. 초기에는 동네 할머니를 위한 미술프로그램도 했고 동네에 할머니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풋거 먹는 날에도 안 나왔는데 마을 주민들은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합니다. 서로를 인정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준연(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 저는 내려와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동네 분들과는 잘 어울립니다. 다만 육체노동에 피로가 있는 편이어서 고추를 따거나 사과를 따는, 노동에 힘이 드는 일은 안하고 대신 음료수를 챙겨드립니다. 동네에 언니 분들, 약 10살 터울이 나는 사람들과 부녀회 분들과 잘 어울리고 있는데 어울리는 것은 개인차 인 것 같습니다. 자기 강점을 살리고 주민 분들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 시 단위 지자체에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 면 단위인 기초단위에서 활발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안의 경우 읍만 커지고 면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전입 인구가 90%는 귀촌인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 읍내에서 생활권을 유지하거나 펜션이나 그 외의 서비스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면은 앞으로 점점 황폐화 되고 그 안에서 문화적 행사나 예술, 교육 부분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볼 때 전반적인 갈등 문제도 포함해서 전출입 문제의 교통, 의료 등에 대한 수요가 가장 걱정입니다. 완주군에 포럼 갔을 때

들은 이야기는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미혼인데, 그 친구들은 시골에 살고 싶지만 걱정하는 부분은 문화적인 욕구, 소통 문제가 있어서 귀농을 꺼려합니다. 자기가 사는 곳하고 친구들이 사는 곳에서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대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횡수도 적고 대부분 읍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고층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통 체계, 문화, 의료와 같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세대의 귀농은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재필(강진군 현천마을 귀촌인): 저희 집은 초등학교 세 명을 데리고 와서 줄어가던 학교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 예술 프로그램은 다양한 경로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잘 찾고 지역민들과 전혀 다른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여성분들도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저희 집사람의 경우 오히려 행복지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문화관련 수업 등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촌에서는 경쟁률이 낮고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을 기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대 지원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에 학교를 보면 현재 어머니회들이 주도하면서 예전에 교장·교감이 주도하던 흐름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제 지자체에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평창의 경우 귀농인들이 15%를 차지한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자신이 속한 지자체에 인구관련 내용이나 자신 지역만의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동희(강진군농업기술센터): 강진군이 제일 먼저 인구 문제에 위험성을 느끼고 다른 시군보다 인구 관련 사업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1,500만 원 정도 보조해 드리고 나머지 50% 자부담을 받고 있고요. 이것으로 농가의 농기계, 하우스 짓는 것 등을 하시라고 보조해 드리고 있고, 주택 수리는 500만 원까지 보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시나 군 같은 경우는 월마다 월급 식으로

드리는 곳도 있고 하는데 귀농 담당자들의 애로점은 사후관리가 어려워서 드리고 싶어서 한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문제에 따라서 한분에게 몰아서 드리는 것보다 여러 분에게 1,500만 원을 나누어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융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는 감성 화합 마을이라고 해서 귀농인들과 이장님들이 함께 마을 꾸미기를 하고 있고 마을버스 정류장 꾸미기를 하면서 50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귀농·귀촌 관련 예산은 도시민 유치사업 자금이 2억 원이고 중앙 정부에서 정착 보조 사업으로 7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금을 얻는데 서류가 복잡해 불만을 가지시곤 하는데 처음에 설명을 잘 듣고 번거롭더라도 잘 따라 오시면 정착하십니다. 원주민이 귀농인들이 자기들 낸 세금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좋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성일(봉화군 풍호1리 전이장): 귀농자들이 정보가 빠르고 사업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통계적으로 토착민들이 더 많이 가져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서로 오해가 많습니다.

임준연(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 저희 군은 지원이 별로 없어 욕을 많이 먹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 준다던데 인구도 적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지원을 안 해주냐고 화를 잔뜩 내고 가십니다. 우리는 주민과 연대하고 어울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의 삶을, 터를 옮기는 것이 금전적인 지원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설득시키지만 쉽지 않습니다.

신기선(봉화군 풍호1리 귀농인): 분배의 원칙이 아주 정당하게 서야합니다. 누구는 어떤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에서 불만이 가중됩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골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농촌 환경이 정말 좋습니다. 시골 교육을 이용해 인구 늘리기 정책에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골 교육 환경은

인성을 중요시하고 교육 환경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경우 아이들 교육을 목표로 귀농귀촌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까 인구변화 관련해서 말씀 해주셨는데 정책관련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송미경(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저희 서귀포 같은 경우는 10년간 늘어날 인구가 몇 년 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귀촌 인구만 5,637명이 늘었습니다. 30대가 36%, 40대 24%가 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은데 귀농인들이 금전적인 지원이 적어 불만이 많습니다. 지원 하는 게 전국적으로 하는 ‘농업 창업 자금 지원’ 및 ‘주택자금’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어서 현실적으로 금전지원을 받으려면 농업을 하면서 농지연보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3억 원에 주택은 7,500만 원 별도인데 3억 원으로는 제주도에 토지를 사지 못합니다.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료 지원도 안 돼서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따로 지원금도 없고 저희가 귀농인의 집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아 집을 개조해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빈집이 없어 아직까지 두 가구밖에 못했습니다. 빈 집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농업 창업 자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230건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는 52건, 올해는 17건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위반 조치 받으신 분들이 많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 지역주민들도 싫어하십니다. 상담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주도 집값에 비해 금액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주택 구입비용이 과중하다 보니 농사를 안 지어도 주택만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임대 후에 농사를 짓는 게 가능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안 짓는 분들도 많으셔서 유예 기간 후에도 안 하시면 회수해 갑니다. 사업 자금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활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늘 새롭게 나온 얘기도 몇 가지 있었고 말씀 나누시면서 다른 마을 사례들도 참고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나온 얘기와 오늘 나온 얘기들을 잘 묶어 정책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